

내년 비엔날레 '걱정된다'

이사장 석달째 공백... 오쿠이 감독, 전시인력 구성조차 못해

신정아 파문으로 후원금도 끊겨

신정아 공예예술감독의 '가짜박사' 파문으로 흥역을 치른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내년 7회 비엔날레를 11개월 앞두고도 아직 구체적인 행사준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엔날레호'의 선장인 재단 이사장의 공백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우여곡절 끝에 총감독을 맡게된 오쿠이 엔위찌씨는 선임 4개월이 지나도록 행사의 기본골격은 물론 전시인력 구성조차 매듭짓지 못해 전체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상임부이사장)이 임시대행체제로 재단을 챙기고 있지만, 국제행사의 현안을 도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미술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근 이사장이 아닌 만큼 재단 운영에

어려울 수 없는 상황이 때문이다. 지난 7월 임 부시장 대행체제 이후 내년 비엔날레의 준비상황,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사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비엔날레 최초로 외국인 감독체제라는 실험이 추진됨에 따라 재단의 중심을 잡고 행사를 쟁길 이사장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기에 새로운 이사장 영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이사장 선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신정아 파문으로 재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쿠이 엔위찌 감독이 전시의 기본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큐레이터(보조기획자)들마저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엔날레 전체 일정을 꾸리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연년 비엔날레의 경우 감독 선임 후 2~3개월 내에 큐레이터가 선임돼 왔지만 오쿠이 감독은 아직 인원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엔날레 준비의 큰 틀이 전시주제 설정, 큐레이터 선임, 전시장 구성 순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으로는 올 말까지 행사를 위한 결말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게 미술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준비 절차가 늦어지면서 비엔날레 전체 스케줄도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오쿠이 감독이 지난 8월 '주제없는 전시' 구상을 밝힌 이후 전시의 기본 골격을 내놓지 못해 내년 비엔날레를 위한 대회 홍보도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주제 없는 전시'의 특성을 감안한다 해도 전시의 내용 등 행사

를 설명할 구체적인 콘텐트가 없기 때문에 해외 홍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정아 파문으로 광주비엔날레의 이미지가 희석됨에 따라 기업의 문화예술포지(메세나)를 받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내년 행사가 재정적인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재단이 올해 모금한 디자인비엔날레 기업 후원금은 3억원, 목표액 5억원의 60%선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비엔날레 모금액으로 정해진 20억원 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오쿠이 감독이 오는 11월 말 말입국해 전시의 기본계획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나설 예정이다"며 "예년보다 전체 일정이 4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무안공항 모두 살리자

2 광주공항 역할 크다

무안국제공항의 탄생 자체가 광주공항의 이전을 전제로 계획된 만큼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건교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광주지역 입장에서 보면, 국제선 이전은 시간·비용면의 추가 부담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전남 최대 도시인 광주의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주공항 국제선 기능 존치 기자

일시: 2007. 10. 22 (월) 장소: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시내 동, 서, 남, 북구 등 4개 구청장들이 23일 오후 동구청 회의실에서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영 서구청장, 유태명 동구청장, 송광은 북구청장, 문봉주 남구청장 권한대행. >관련기사 7면

/니영주기자 mjna@kwangju.co.kr

20 문화수도 날개 꼭 필요

국제선 폐지엔 '하늘길 막힌 국제도시'

광주공항은 지방공항으로서 드물게 돈을 벌어들이는 흑자공항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국제선을 갖춘 광주공항'은 수도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지역 최대 거점도시이자 국제회의 도시, 문화중심도시인 광주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인프라 겸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단순 교통 시설이 아닌 가치를 측량하기 어려운 무형의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광주공항의 연간(2006년 기준) 이용객은 국내선의 경우 총 1만2천305명 운항에 150만명에 달한다. 국제선은 총 1천253명 운항에 12만4천339명이 이용했다. 화물운송량은 국내선의 경우 2만2천488

t, 국제선은 1천383t에 이른다. 이로 인해 광주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중 당기 순이익이 5위에 달하는 흑자 공항이다. 광주공항은 2004년도에는 14억원, 2005년도에는 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규모와 입지 면에서 국제 수준의 공항인 인천과 김포·김해·제주 등 4개 공항을 제외하곤 지방 공항으로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공항이다.

광주공항은 광주와 전남은 물론 전북, 대전, 경남 서부권 지역민 등이 이용하는 호남권의 중심공항으로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전북

은 청주공항이나 인천공항으로, 전남 동부권인 순천·여수·광양은 김해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은 공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광주지역 경제계의 분석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여행업계는 강원도 양양공항의 사례를 들고 있다. 양양공항은 인근 강릉공항과 속초공항을 인위적으로 폐쇄하고 개항했으나 접근성 결여로 지난 2002년 21만명이었던 이용객이 점차 줄어 2006년에는 5만2천명 수준에 달하면서 연간 적자도 129억원(2006년 기준)인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대선주자 연속 인터뷰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인터뷰 4·5면

“호남고속철 5년내 개통하겠다”

“국가적 인프라...경제성 따져선 안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21일 "호남고속철도는 개통을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공항 귀빈실에서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고속철 같은 국가적인 중요한 인프라는 현재의 경제성을 따져서 건설시기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집권한다면 호남고속철은 임기 내

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인프라는 경제성을 따르기보다 선투자 하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호남과 같은 낙후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먼저 인프라가 되면 나중에 산업화가 된다. 재정이 어렵다면 차관을 통해서라도 인프라를 해야 한다"고 말해 '낙후지역 SOC 선투자'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호남운하 공약과 관련, "호남운하 즉 영산강 운하는 먼저 착공해도 되고 경부운하와 동시에 공사해도 된다. 같이 공사하더라도 경부운하보다 영산강 운하가 훨씬 빨리 끝나게 될 것이다"며 "광주와 나주에 항구가 생기게 되면 공장이

들어오고 산업이 발전하게 되며 관광 자원에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광역경제권 개발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첨단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이 어우러지는 광역경제권이 형성되면 광주와 전남지역은 높은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지역이 될 것이다"며 "서남권 관광개발을 광주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여기에 광양·여수·순천까지 포함하는 광역경제권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에 필요한 철도, 도로, 항공 기반시설 등 인프라는 국가가 마련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대폭 앞당겨 조기 완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광주문화중심도시 건설, 서남해안레저도시(J프로젝트)사

업,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업, 혁신도시 건설 등의 지속 여부에 대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착수한 사업은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BBK 사건과 관련 김경준씨 귀국설과 관련 이 후보는 "그동안 본인이 안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뭔가 복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찰을 믿는다. 법원도 정치권과 달라서 신뢰한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확정됨에 따라 23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를 시작으로 주요 대선 후보 연속 인터뷰를 실시한다. 대선 후보 인터뷰 보도 순서는 광주일보와 후보 측과의 일정 협의와 인터뷰 시점에 따라 무순으로 게재합니다.

우일백년 장학 57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www.nam.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블랙먼데이 악몽... 코스피 66P 폭락

장중 한때 1900 붐피

주식시장이 뉴욕증시의 급락과 중국발 긴축 우려, 고유가 등 불안한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아 1,900선 근처까지 추락했다. <관련기사 11면> 22일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 대비 66.29포인트(3.36%) 급락한 1,903.

81로 마감했다. 이날 낙폭은 미국발 신용경색 우려로 지난 8월 16일 125.91포인트 급락한 이후 최대이며 하락률도 당시 6.93% 떨어진 이후 최대치였다.

코스닥지수도 18.03포인트(2.29%) 하락한 768.90로 마감했다. 증시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뉴욕

증시가 19일(현지시간) '블랙 먼데이' 20주년을 맞아 고유가와 경기침체, 기업실적 악화 등의 악재로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코스피지수는 장중 1,875.23까지 떨어졌다가 기관투자자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이 줄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오직, 천연식품! 100% 천연식품에서 추출한 원료로만 만듭니다 「자연의 시작 불가리스」

1 레변X2! 더블레변전력! 2 천연식품에서 추출한 원료만 100%!

www.nanyang7.com